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동그랑땡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돈저냐'를 달리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동그랑땡'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돈저냐’를 달리 이르는 말.

동그랑땡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동그랑땡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동그랑땡 사전 표기 요약	—	—	—	—	—	●→
똥그랑땡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동그랑땡
  20세기현재
- 똥그랑땡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똥그랑땡, 동그랑땡

동그랑땡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동그랑땡’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첫음절을 된소리로 적은 ‘똥그랑땡’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동그랑땡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똥그랑땡, 동그랑땡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똥그랑땡, 동그랑땡

출처 1960 경향신문 12월 8일 4면

용례 01

문헌 용례

대폿집에서 대포 한 잔에 즐기는 꽃이나 빈대떡 또는 똥그랑땡을 빈주로 酒氣가 오름에 따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2 경향신문 4월 2일 10면

용례 02

문헌 용례

아주머니, 여기 술 한 되 더 주시고 똥그랑땡도 한 접시 주세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5 조선일보 2월16일 6면

용례 03

문헌 용례

두부 동그랑땡.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6 경향신문 3월 22일 11면

용례 04

문헌 용례

금(밥) 동그랑땡 김 구이 깍두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93 경향신문 9월 12일 9면

용례 05

문헌 용례

게다가 안주라고는 밀가루에 돼지기름 따위를 버무려서 뜸들인 똥그랑땡이라는 것이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동그랑땡의 보충 설명

'동그랑땡' 혹은 '똥그랑땡'은 1920년대부터 쓰임이 확인된다. 잡지 ≪별건곤≫ 2호(1926년 2월)에 '쏭그랑쌩'으로 나타나는데 음식 이름은 아니다. 걸인이 부르는 노래에서 후렴구처럼 쓰였다. 여기서 '쏭그랑쌩'이 '쏭그랑' 즉 동그란 모양인 동전과 '쌩'이라는 소리가 결합된 말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걸인이 동전을 땡 소리가 나게 던져 달라는 뜻으로 '쏭그랑쌩'이라고 했던 듯하다. 실제로 기사 말미에서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은화, 백동화를 주었다고 나온다. '동그랑'이란 말은 홀로 쓰이지는 않지만 굴렁쇠를 뜻하는 '동그랑쇠'에서 동그란 모양을 가리킨다. 가사 내용은 다르지만 후대에 '동그랑땡' 혹은 '똥그랑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방에서 민요로 채록되기도 했다. 그만큼 '동그랑땡'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고 볼 수 있다. 1969년에는 동그랑땡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 기사도 보인다<1969 동아일보 8월 7일 6면>. '돈'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이 동그란 동전과 생김새가 닮아 '돈저냐'에 '동그랑땡'이라는 별칭이 생겼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그런데 1960년에 나온 신문 기사에서 '똥그랑땡'이 술집 안주로 소개된다. 1993년에 나온 기사이지만 1960년대를 회고하면서 쓴 글에서 밀가루에 돼지기름 따위를 버무려서 뜸들인 것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지금 말하는 '동그랑땡'과는 다른 음식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1960년대에 나온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이미 '돈저냐'의 속어로 오른 것을 보면 술집에서는 비슷하게 모양만 흉내를 내고 이름을 붙인 것일 수도 있다. 1980년대에는 돼지고기와 두부 등을 넣고 집에서 만드는 반찬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무렵에는 이미 꽤 많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1989년에 식품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에 '동그랑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많이 팔리면서 그 후로 '동그랑땡'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동그랑땡 관련 낱말

돈저냐

동그랑땡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한성우 2024 동그랑땡 [한성우 교수의 맛의 말, 말의 맛] 〈문화일보〉 2024년 9월 13일 30면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동그랑땡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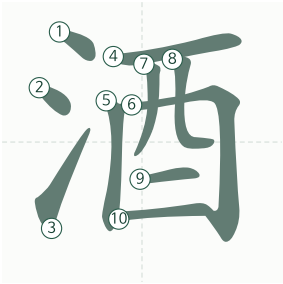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酒

뜻·음 술 주

총 10획 · 부수 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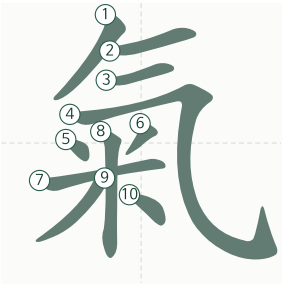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酒/

氣

뜻·음 기운 기

총 10획 · 부수 气





hanja.wordrow.kr/한자/氣/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